

SUNBO NEWS

주요소식

PLUS2020 신사업 대막을 알리다 선보엔젤파트너스(주) 설립

부산지역 초기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리 회사 선보엔젤파트너스(주)와 부산지역 각 대학 산업협력단이 주주로 참여하는 부산연합기술지주(BUH)가 지난 2월 24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식을 가졌다. 선보엔젤파트너스(주)는 경영기획팀 최영찬 차장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법인으로 부산-경남지역 초기기업에 투자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전문 투자회사이다. 이번 MOU 체결식으로 선보엔젤파트너스(주)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PLUS2020' 신사업 창출의 서막을 올린 것이다.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인 설립을 준비해온 선보엔젤파트너스(주)는 현재 해운대 센텀시티에 있는 '부산팁스(TIPS)타운'에 등지를 틀었다. '팁스'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3년 중소기업청이 도입한 창업 활성화 지원정책이다. 부산-경남 지역에는 해운대 센텀에 최초로 팁스 'CENTAP(센텀기술창업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부산팁스타운'에는 선보엔젤파트너스(주)와 같은 엔젤투자지원회사와 함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와 신생 벤처업체들이 입주 예정이다.

최영찬 차장과 함께 선보엔젤파트너스(주) 공동 대표이사를 맡은 사업기획팀 오중훈 차장은 "이번에 설립한 회사는 초기 기업과 창업회사들의 법인 설립을 도와주고 비전 있는 회사에 투자 지원을 함으로써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입니다. 팁스타운을

중심으로 고급기술 창업자와 벤처투자자들이 밀집한 창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PLUS 2020의 신사업 톨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부산연합기술지주는 부산시와 16개 지역대학이 뜻을 모아 설립하였으며 지역 대학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우리 회사는 부산연합기술지주와 MOU 체결을 맺고, 대학의 R&D(연구개발) 성과가 체계적인 사업화 시스템을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또한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창업을 돕고 기업 경영에 대한 자문을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질 것이다. 나아가 창업 회사들의 후속 투자까지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팁스'와 함께 초기 창업시장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셈이다.

선보엔젤파트너스(주) 설립으로 "1986년 자본금 600만 원으로 남영공업을 창업했을 당시의 어려운 시절이 마음에 남아있어 늘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최금식 대표이사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진 셈이다.

선보엔젤파트너스(주)가 등지를 뜬 부산팁스타운의 공식 개소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4월초에 열릴 예정이다. 부산팁스타운에 최초로 입주한 법인으로 창업시장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선보엔젤파트너스(주)의 성장을 선보 Family 임직원 모두가 함께 응원할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지원본부 심현석 이사 우리 회사 방문

지난 2월 18일, 우리 회사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지원본부 심현석 이사 외 관계자들이 방문했다. 심현석 이사 외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들은 본사 다대1공장에 마련된 홍보관에서 홍보관 관광과 준비된 회사 현황 및 조선 산업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짧은 좌담회를 가졌다. 최금식 대표 이사는 조선 산업군들이 금융권 자금 지원에 난색을 하고 있어 당사의 협력사들이 자금난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당사와 협력사간의 상생펀드 조성을 건의했다. 이에 심현석 이사는 "조선 산업의 불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선보공업 임직원들을 격려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밝혔다.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선보유니텍(주)에 감사패 수여

선보유니텍(주)는 지난 2월 24일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원으로서 봉사 정신을 발휘하여 조합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경복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은 우리나라 조선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으로 150여 개의 조선관련 업체들이 가입되어 있다.

1979년부터 형성된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활동을 조성하고 지위향상에 기여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 선보유니텍(주)은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의 회원사로서 조합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회사소식

조선 설계부 안전 기원 시산제 거행

2016년 안전 기원 시산제는 '2016년 조선 설계부의 무사안녕과 사업실적 100% 목표 달성'을 목표로 거행되었다.



우리 회사 조선설계부는 지난 2월 20일 금정산 북문에서 조선 설계부 안전 기원 시산제 거행했다. 시산제는 '2016년 조선 설계부의 무사안녕과 사업실적 100%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본사 다대1공장과 구평공장 조선설계 3개 팀이 모두 참석했다.

안전 기원 시산제는 매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시되었으며, 이번 년도에는 특히 설계부 전원이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올해는 금성동 주민센터와 범어사에서 출발하는 두 개 조로 나뉘어 목적지인 금정산 북문으로 향했다. 시산제는 설계부 최순찬 부장의 우렁찬 축문 낭독으로 시작되었다. 최순찬 부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원들이 함께 산을 오른 만큼 2016년 한 해의 설계부 무사안녕과 사업실적목표 달성을 기원해 봅니다. 올해도 조선설계부를 비롯하여 모든 선보 가족이 모두 안전하고 무탈하길 바랍니다."라는 말로 시산제에 의미를 부여했다.

참가한 직원들도 차례로 절을 올리며 설계부와 우리 회사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시산제에 참가한 직원들은 "형식적인 시산제가 아니라, 시산제를 계기로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라며 시산제를 참가 의의를 되새겼다.

선보인의 염원을 모은 시산제를 마친 뒤에는 금정산 자락에 위치한 가든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특히 식사 후 가든 뒷마당에서 열린 족구대회의 열기는 뜨거웠다. 박빙의 승부 끝에 설계1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족구대회에 주축이 되어 참여한 설계1팀원은 "그동안 열심히 다져온 체력 덕분인 것 같습니다. 틈틈이 연습한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받은 상금으로는 팀원들과 멋진 회식을 하고 싶습니다!"며 우승 소감을 전했다. 설계1팀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우승이다.

앞으로도 설계부는 친목도모와 의지를 다지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다가오는 4월 23일에는 설계부 단합대회가 열리고 9월 24~25일에는 단합대회로 레프팅이 계획되어있다. 2016년에도 우리 회사 설계부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본다.

interview

다대 3공장 서재춘 전무 입사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해서 선보의 미래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서재춘 전무의 든든한 각오로 우리 회사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



지난 3월 7일, 우리 회사 다대3공장에 서재춘 전무가 새로 부임했다. 서 전무는 대우조선해양에서 30여 년간 구매와 외주관리팀에서 근무를 했다. 퇴직 이후 삼우중공업에서 생산담당, 경영지원, 생산지원부에서 임원을 맡기도 했다.

서 전무는 오랜 기간 조선업계에서 일을 해오면서 업계동향 파악은 물론 남다른 판단력과 통찰력을 겸비했다.

최금식 대표이사와의 대우조선해양에서 2년 정도 함께 일을 한 경험이 있다. "그때 담당 과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최금식 대표이사의 열정만큼은 대한민국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으로 모시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 전무와 우리 회사의 인연은 꽤 깊다. 최금식 대표이사와 함께 근무 경험은 물론, 우리 회사 창업 당시부터 대우조선해양 자재관리부로 종종 우리 회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때 당시에도 느꼈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조선 유니트 부문에 있어서는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입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노하우와 경쟁력을 선보에서 마지막으로 불태워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해서 선보의 미래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서 전무의 각오는 남다르다.

다대3공장 직원들도 덩달아 힘찬 에너지로 넘친다. 든든한 서 전무와 우리 회사의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본다.

건강정보

요통을 예방하는 일상생활 습관

요통은 척추뼈, 추간판(디스크), 관절, 인대, 신경, 혈관 등의 기능 이상 및 상호 조절이 어려워짐으로써 발생하는 허리 부위의 통증을 말한다.

요통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 요통에 좋은 생활 습관

1. 과식은 금물

변비는 요통을 악화시키므로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물과 섬유질이 풍부한 오곡밥을 먹는 것이 좋다.

2. 마늘 우유의 놀라운 효과

마늘 2~3개와 우유를 갈아 만든 우유를 반 컵씩 매일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좌골 신경통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마늘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피를 맑게 하는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단, 마늘 우유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니 적당한 섭취를 권장한다.

3. 기혈의 흐름을 돕는 부추와 당근

부추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성질이 따뜻해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 순환을 좋게한다. 묵은 피를 배출시켜 만성 요통에 효과적이다.

4. 관절염에 좋은 생감자 주스

아침 식사 전에 생감자 주스 반잔에 따뜻한 물 반잔을 부어 희석해서 마시면 관절염에 좋다. 생감자 주스는 최소 6개월 이상해야 효과가 있다. 또 과도한 동물성 산성식품인 모든 고기류, 생선, 달걀, 치즈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 요통 환자들이 피해야 할 것

1. 담배

담배는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척추 및 디스크로 가는 영양소, 뼈에 있는 칼슘 수치를 감소시켜 골다공증을 초래한다.

2. 술과 커피

술을 많이 마시면 뼈의 칼슘과 미네랄이 빠져 나가고, 허리뼈가 약해진다. 하루 세잔 이상의 커피 역시 척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 하지만 포도주 한 잔, 가볍게 마신 맥주 등은 허리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스, 긴장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포도주는 동맥의 동맥경화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부산은행 사보, 춘해병원장 안철 병원장 글 일부 참고>

사내복지

금연펀드 성공기념 행사 개최 "금연 성공했어요!"

금연에 성공한 선보기족을 소개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금연펀드'는 총 36명이 참가하여 19명이 성공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3일 '금연펀드'를 통해 금연에 성공한 금연성공자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금식 대표이사를 비롯 금연성공자 19명이 참석했다.

'금연펀드'는 건강한 기업문화 구축과 건강증진을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해온 임직원 복지제도의 일환이다. 지난해 총 36명이 참가하여, 19명이 금연에 성공했다.

금연성공자들은 지난 1년간 흡연의 유혹을 이겨내고 금연을 생활화해왔다. 3개월에 한 번씩 소변검사와 이산화탄소 수치를 검사하고, 1년간 니코틴 수치를 체크한 결과 완전한 금연에 성공했다.

금연성공자들에게는 펀드기간동안 모인 기금과 축하금 40만원을 더해 총 16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실패한 참가자들이 모은 기금은 해당 참가자들의 이름으로 초록어린이재단과 사하구 일대 복지관에 기부했다. 올해는 3월부터 참가자 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실패했던 참가자들에게도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금연 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연에 성공한 선보기족 다대공장 안태주 팀장

먼저 금연에 성공하게 된 저 자신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서가 도장쪽이라 냄새도 많이 나고, 몸도 좋지 않아서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도 금연을 많이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금연펀드를 시행한다고 하길래 동참하여 시도를 했는데, 참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중도에 포기할까 생각도 들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금연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주위 동료들이 많이 동참하여 금연에 성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금연에 성공한 선보기족 설계팀 심응복 사원

작년에 전사적으로 시행하는 금연 펀드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임도 많았습니다.

아무런 금연 보조도 없이 의지만으로 도전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나 마지막까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작은 보상과 자신과의 약속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라면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짐작 되었습니다. 여러 성공 사례를 보면 혼자서 하기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서로를 도와가며 도전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결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연을 시도하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고, 위기들도 많았습니다. 금연에 성공했지만 아직도 흔들리는 순간들도 많을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떠올리며 화이팅 하겠습니다.

금연에 성공한 선보기족 성공자 리스트

☑ 선보기업	관리 설계1	최순찬	관리 지재조달	손정락
	관리 설계1	심응복	관리 플랜트설계	박귀남
	관리 설계	김태호	다대1공장	안태주
	다대2공장	김승우	다대2공장 생산관리	배승용
	다대3공장	임혁빈		

☑ 선보기업	구평 품질	김영호	구평 설계	유시욱
	구평 설계	이도현	구평 생산관리	김광욱
	구평1공장 생산관리	현재규	영도 품질	권운현
	영도 품질	최동욱	영도 지원	이영곤

☑ 선보기업	영업 품질	서형철	군산 공장장	김건우
--------	-------	-----	--------	-----

모/집/공/고



2015년에 이어 2016년도에도 금연에 도전하실 선보 임직원을 모집합니다. (실패한 직원 재도전 가능)

※문의 사항
총무팀 전만석 대리 (260-5543)

회사소식

우리 회사, 부산지역을 선도하는 장수기업으로 국제신문에 소개

지난 2월 21일 국제신문 19면에 우리 회사의 기사가 실렸다. 우리 회사는 '개별 선박장치 통째 세트 개발...' '모듈유닛' 세계 넘버원 우뚝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조선산업 경쟁력을 높인 기업으로 소개되었다.

최금식 대표이사가 수입에 의존하던 조선기자재들을 국산화하겠다는 꿈을 실현하고자 자본금 600만 원으로 시작한 남영공업부터 현재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선박 기관실 모듈 유닛 개발, 선박 엔진용 연료오일 정화 시스템(Fuel Oil Purifier System), 세계 최대 규모 원유정제저장운반선(FPSO) 핵심 공정 유닛화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로 부산 조선기자재 업계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내용이 기사의 주요 골자이다.

덧붙여 우리 회사의 직원감동 경영으로 2008년 국내에서 중소기업으로서는 처음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는 것을 밝히며, 이는 '선보 임직원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은 가정'이라는 최금식 대표이사의 직원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반증이라고 전했다.

향후에도 우리 회사는 부산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선도기업으로, 기술 제일의 '퍼스트 무버'로, 조선산업의 위기를 돌파하는 선봉장으로 조선업계를 견인해 나갈 것이다.

고사성어

고사성어를 통해 배우는 지혜 절영지연(絶纒之宴)

"갓 끈을 끊고 연회를 즐기다"라는 뜻으로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두면 훗날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다.

옛날 초나라 장왕은 나라안의 큰 난을 제압한 공이 큰 신하들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고, 애첩을 시켜 신하들의 술잔에 술을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갑자기 광풍이 불어 촛불이 모두 꺼져 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애첩의 몸을 더듬는 일이 벌어졌고, 애첩은 그 사람의 갓끈을 잡아끄고, 장왕에게 고하여 촛불을 켜 갓끈이 없는 자에게 벌을 내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장왕은 이렇게 엄명을 내렸다. "오늘 연회는 여러분들의 공을 치하하기 위한 자리이다. 만일 내가 마련한 자리가 즐거웠다고 생각된다면 모두 갓끈을 끊어라. 그렇지 않은 자는 오늘 연회가 즐겁지 않은 것으로 알겠다!"

그러자 모든 신하들이 갓끈을 끊었고, 연회는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무탈하게 끝이 났다.

3년 뒤 초나라와 진나라의 전쟁에서 한 장수가 계속적인 전투에서 죽기를 무릅쓰고 선봉에 나서 승리를 이끌었다.

장왕이 친히 그를 불러 "내 특별히 너를 잘 해준 적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찌 너는 그토록 목숨을 아끼지 않았느냐?" 그 신하는 3년전 장왕의 애첩을 희롱한자가 자기였다고 이실직고 하였다. 그리고 그때 이미 장왕에게 목숨을 빚겨 기회가 되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 했었으며, 이번에 기회가 닿아 은혜를 갚게 되어 오히려 기쁘다고 말했다.

culture

2016년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



지난 3월 4일 다대1, 2, 3공장 마당에서 풍물패가 한바탕 지신밟기 놀이 공연을 펼쳐졌다. 지신밟기 행사는 우리 회사가 위치한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정월대보름 행사의 일환으로 다대2동 청년회가 매년 주최하고 있다. 지신밟기는 대보름을 전후해 집터를 주는 지신에게 고사를 올리고 풍물을 울리며 축복을 비는 민속놀이이다. 다대2동 청년회는 풍물과 지신밟기를 통해 선보가족의 만복을 기원했고, 임직원들은 또한 흥겨운 사물놀이를 구경하면서 회사의 안정과 가정의 다복을 빌었다. 우리 회사에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도 함께 즐겼다.

다대2동 청년회는 우리 회사를 시작으로 다대동 일대에서 공연을 펼치며 민속놀이 정취를 한껏 풍겼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할 예정이다.

경영지원팀,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찾아 급식 봉사활동 실시

우리 회사 경영지원팀이 지난 3월 3일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식당을 찾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선보인들은 반찬 재료 손질부터 음식을 직접 만들어 배식하고 설거지, 청소까지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선보인들은 “회사가 있는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해드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저희가 준비한 식사를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뿌듯합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우리 회사는 매년 3개월에 한 번씩 복지관을 찾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기업인됨을 위시하여 앞으로도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2016년 사랑의 반찬만들기 행사’ 각 종 언론에 보도되다

지난 2월 3일 우리 회사가 사하구 지역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랑의 반찬만들기’ 행사가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아시아투데이에 게재되었다.

우리 회사는 사랑의 반찬만들기 행사뿐 아니라 매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2월 17일에는 사하구에 거주하는 부자가정(父子家庭) 50가구를 위해 제2차 ‘사랑의 반찬만들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설계팀은 오징어채볶음, 연근 볶음, 깍두기 등을 직접 만들어 사하구 다대1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나의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사랑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생일 축하합니다

- ☑ **본사** 박성호 (03.01) 박원석 (03.05)
최원석 (03.05) 제구원 (03.10)
김성호 (03.12) 김형오 (03.13)
석종현 (03.14) 로 힘 (03.15)
김정옥 (03.15) 고덕수 (03.17)
와 완 (03.19) 정재원 (03.21)
전병갑 (03.22) 오정용 (03.24)
김승우 (03.24) 지창대 (03.29)
노재태 (음02.01) 김청옥 (음02.11)
배승용 (음02.12) 유원중 (음02.14)
서재욱 (음02.15) 진병석 (음02.15)
조현상 (음02.19) 황지석 (음01.29)
- ☑ **구평공장** 이은석 (03.03) 이민규 (03.05)
정광진 (03.08) 이서로일 (03.08)
오창배 (03.10) 국두안 (03.13)
이옥란 (03.17) 전민재 (03.20)
왕청해 (03.21) 권희정 (03.28)
민병재 (음01.28) 박상준 (음01.29)
유시욱 (음01.30) 정용수 (음02.13)
박현수 (음02.14) 권태식 (음02.16)
김창영 (음02.17)
- ☑ **영도공장** 서미영 (03.14) 한윤수 (03.15)
전희식 (03.15) 이기한 (03.15)
이대희 (03.18) 박종환 (03.24)
이재호 (03.28) 문정희 (음01.27)
김영희 (음02.07) 손현숙 (음02.15)
정윤환 (음02.23)
- ☑ **군산공장** 로이타 (03.14) 박천수 (03.20)
이덕연 (음02.14)
- ☑ **영암공장** 호반홍 (03.02) 박세현 (03.02)
박상부 (03.05) 조동진 (03.11)
찬다나 (03.31) 김명훈 (음02.11)
김동선 (음02.11) 노성담 (음02.23)
이재식 (음01.25)



임사 기념일

- ☑ **본사** 박장현 (03.01) 황지석 (03.02)
한진우 (03.02) 허 용 (03.02)
이신복 (03.02) 김형진 (03.03)
편재웅 (03.03) 성재경 (03.04)
방대혁 (03.06) 유병창 (03.07)
이석형 (03.07) 최두영 (03.07)
조숙희 (03.09) 김태호 (03.10)
윤준호 (03.10) 이지영 (03.14)
엄익상 (03.18) 강민준 (03.23)
조재현 (03.23) 임종화 (03.26)
- ☑ **구평공장** 박현일 (03.06) 조연주 (03.17)
- ☑ **군산공장** 고낙범 (03.01) 김진환 (03.03)
조지훈 (03.12)
- ☑ **영암공장** 정봉주 (03.01)